뉴시스 2018. 7. 30.

폭염 대책 쏟아내는 대구…쪽방촌 주민은 찜통더위로 고통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한낮 수은주가 33도까지 치솟은 30일 대구 중구 성내2동의 한 건물에 1평 남짓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2018.07.30.soso@newsis.com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올해는 유독 여름나기가 어려워. 딱 죽을 맛이야."

한낮 수은주가 33도까지 치솟은 30일 오후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 뒤편 골목길. 도심 한복판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가 있다. 대구 중구 성내2동 쪽방촌이다.
좁은 시멘트 도로를 따라 줄지어 늘어선 낡은 건물에는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1평 남짓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시설이라곤 공동 목욕실과 재래식 화장실이 전부다.

월세 17만 원짜리 쪽방에서 5년째 거주하고 있는 김모(60)씨는 "선풍기로 더위를 버티는 데 전기료가 겁이나 낮에만 잠깐 틀어둔다"면서 "욕실은 하난데 16가구가 함께 사용해 매일 차례를 기다려야 하고 창문 없는 방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도 곤욕스럽다"고 말했다.

이곳 쪽방촌에 사는 사람은 온종일 집 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고령인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한낮 수은주가 33도까지 치솟은 30일 대구 중구 성내2동의 한 창문 없는 쪽방촌에서 김모(60대)씨가 선풍기 2대로 더위를 나고 있다. 2018.07.30.soso@newsis.com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란 별칭까지 붙은 대구는 해마다 살인적인 무더위가 반복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대구시는 쪽방촌과 노숙인 시설에 재난도우미 2733명을 파견해 수시로 방문하고 안부 전화로 건강을 점검한다.

경로당, 금융기관 등 935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쪽방촌 생활인에게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이 담긴 재난문자도 보낸다.
제자리 걸음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빈곤층을 위한 전기세 감면 등의 실질적 지원대책은 없고 '보여주기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각종 공공기관까지 가세해 폭염 속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복지는 턱없이 낮아서다.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한낮 수은주가 33도까지 치솟은 30일 쪽방촌이 모여 있는 대구 중구 성내2동의 골목길이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다. 2018.07.30.soso@newsis.com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쪽방촌 생활인은 총 80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중구(303명), 서구(225명), 동구(179명), 북구(101명) 순이다.
대구시는 올해 쪽방 생활인 지원 예산으로 총 5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행복나눔의집, 쪽방상담소 등의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인다.

물, 선풍기, 여름이불, 반찬 등 쪽방촌 생활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대부분 민간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혹서기 2달 만이라도 쪽방촌 생활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원룸이나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쪽방촌 위생 점검과 함께 이동식 목욕시설, 민관협의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준공한 중구 대안동 행복나눔의집의 경우 쪽방촌 생활인이 세탁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지만 구·군마다 이 같은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예산문제로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구는 연일 한증막에 갇힌 것과 같은 찜통더위가 수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과 같은 온열질환에 걸린 이들이 82명이 넘고, 2명은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찾아온 지난 10일 이후에 집중됐고, 20일부터는 하루 평균 7~8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Sos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